

아리랑, '문화도시' 진도의 가을밤 뜨겁게 달궜다

'코드 아리랑, 만개 아리랑' 공연

진도군·전남도 주최·전남일보 주관 지역 명창·퓨전 밴드 등 무대 올라 "현대적 재해석 통한 가능성 확인"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기대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진도아리랑'이 전통과 현대를 어우르고 미래로 나아간다. 과거 한국인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했던 '아리랑'이, 본고장 진도 무대를 통해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다.

진도군·전남도가 주최하고 전남일보가 주관한 '코드 아리랑, 만개 아리랑' 공연이 지난 25일 진도군 향토문화회관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 문화의 섬 진도 미래비전 선포식을 기념해 기획된 특별프로그램으로 아리랑을 현대적 방식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졌다.

공연은 진도 출신 이운선 민속학자가 해설을, 오단해 소리꾼과 프랑스 출신의 마포르르 소리꾼이 사회를 맡아 △1부 원형의 아리랑, 민속의 아리랑 △2부 모던·크로스오버·퓨전 아리랑 △3부 포스트모던·다원예술 아리랑 순으로 진행됐다.

첫 무대로 주요 3대 아리랑 지역인 진도·밀양·정선의 원로명인과 명창들이 무대에 올라 소리의 뿌리를 짚었다. 이들의 힘 있는 울림은 민속의 한을 되짚었고 동시에 스크린에 상영된 복원 영상은 아리랑이 걸어온 길을 조명했다.

이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2주년을



진도 강승대 명창과 남도잡가보존회 회원 등이 지난 25일 진도 향토문화회관 야외특설무대에서 진도군·전남도 주최, 전남일보 주관으로 열린 'Code 코드 아리랑, 滿開 만개 아리랑' 공연에서 관객들과 함께 진도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기념하는 창작공연 '아리아라리'의 하이 라이트 갈라쇼가 펼쳐지며 1부의 끝을 장식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주제에 맞게 아리랑의 현대적 재해석과 국악인들의 새로운 감정이 깃든 표현들을 만나볼 수 있었다.

국악천재 송소희 아티스트와 오단해 국악인이 크로스오버 퓨전 밴드 '두번째달'과 협연해 무대에 올라 각각 '정선아리랑'과 '강원도아리랑', '산아지타랑'과 '백년의 아리랑'을 부르며 가을의 정취가 흐르는 예향 진도의 밤을 아리랑의 혼으로 물들였다.

또 창작음악집단 국악아이돌그룹 '소리꽃가객단'이 '이야리랑', '해야아리' 등을

선보이며 국악의 소리와 현대적 안무를 결합한 아리랑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고, 1997년 창단한 진도여성합창단과 진도의 어린이들이 무대에서 송소희 아티스트의 창작곡인 '내나라 대한'을 다 함께 노래하며 국악의 원형과 현대 그리고 미래를 잇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결성된 '변화무쌍 아리랑'이 대미를 장식했다. 그룹 '유희', 비보이 'MB크루' 모둘러신아티스트 임유주 등이 재기발랄한 융복합 창작국악무대를 펼쳐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유도해 냈다.

이번 '코드아리랑 만개아리랑' 행사를 기획한 엄기숙 총괄감독은 "아리랑은 한

국인의 정체성, 감성, 혼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며 "아리랑의 내재성, 실재를 가능해 보는 계기를 만들어 보는 게 기획 의도였다"고 밝혔다.

엄 총괄감독은 이어 "아리랑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일종의 가공이 필요하다.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도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친절한 기획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기획 기간과 함께 문화예술가, 기획자, 정책과 행정, 경영과 홍보 등 전 분야에서 치밀한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연 무대에 선 국악인들도 아리랑이 재창작되는 과정에서 발휘될 수 있는 확장성과 세계화에 대한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악아이돌그룹 소리꽃가객에서 울해 초부터 활동을 시작해 막내 소리꾼을 담당하는 마혜지(24)씨와 박지수(24)씨는 국악의 소리와 현대적 춤을 융합한 팀에 매력을 느껴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마씨는 "평소 진도아리랑 민요를 많이 공연하는데 본고장을 찾아 의미가 깊고 새롭다"며 "준비 과정에서 원곡을 어떻게 편곡해야 하는지 고민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 만들어지고 난 뒤 느끼는 성취감은 매우 컸다"고 말했다.

박씨는 "이번 공연은 아리랑에 대한 다양한 재해석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다. 아리랑이라는 무궁한 재료를 가지고 끊임없는 확장과 융합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돼 오는 12월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문화도시 추진의 핵심 중 하나인 '진도아리랑'을 통해 세계적 문화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문화도시 지정은 문화 자산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진도아리랑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연과 축제를 기획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체험을 준비하고 있다. 각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해 현대적 미디어 아트,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객들에게 선보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화도시로 선정된 도시는 문체부로부터 3년간 최대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 '우리 같이 놀아볼래?' 첫 선 '전남아트박람회 ART 061' 성황리에 마쳐

내달 2일 무안 남도소리올림터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의 2024년 정기공연 '우리 같이 놀아볼래?'가 다음달 2일 오후 4시 무안 남도소리올림터 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이날 첫선을 보이는 '우리 같이 놀아볼래?'는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바람을 주제로 담은 공연이다. 특히 올 한 해 동안 어린이국악단 단원들이 준비한 신규 작품들을 다수 선보일 예정으로 서도민요를 새롭게 구성한 가야금병창 3중주 '술비타령'과 한반도 최초의 현악기인 마한금(馬韓琴) 합주곡 '김창조 가락에 의한 영보정풍류', 창작무 '꽃 나들이' 등이 이번 정기공연을 통해 첫 공개된다.

어린이 연희극 '우리 같이 놀아볼래?'

에서는 서로 다른 두 친구 '냥냥이'와 '땡땡이'들이 다름을 극복하고 펼치는 신명나는 놀이판과 함께 이날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임오섭 총연출 객원 예술감독은 "어린이 단원들이 오랜 시간 정성으로 준비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끊임없는 고민과 연습 끝에 탄생한 작품을 꼭 지켜보고 지역의 보물인 어린이 예술가들에게 힘과 격려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립어린이국악단은 매년 상반기 단원들을 모집해 주말 교육을 통해 상임단원의 전문 교육을 받고 있다. 연 1회 정기공연을 비롯해 도립국악단 상설공연, 각종 초청공연에 출연하는 등 전남 홍보사절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박찬 기자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지역 문화예술 홍보·단체 공연

전남도와 전남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화순군이 후원하는 '2024 전남아트박람회 ART 061'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전남아트박람회 ART 061'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선보이고 예술인과 도민이 만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됐다.

먼저 이용대 광장에서는 행촌문화재단, 한국민화뮤지엄, 청년 문화연구소 아작 등 12개 지역 예술단체와 전남예술인 복지플랫폼, 마한체협부스까지 총 14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 가운데 가족단위 253팀이 사전예약을 통해 체험활동에 참여했고 플루티스트 나리, 소프라노 차유경 등 6개팀의 버스킹 공연이 관객의 이목을 끌었다.

선큰광장에서는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지역 기초문화재단의 홍보부스가 운영되고 풍물굿패 해원, 성향예술단, 앤디킴 트리오 등 지역 예술단체 7개 팀이 공연을 선보였다.

갤러리존에서는 서울옥션과 연계한 제로베이스 프리뷰 전시가 진행됐다. 우리, 여승주 등 12명 작가, 79점이 출품돼 전



'2024 전남아트박람회 ART 061' 행사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지난 20일 마무리됐다. 전남문화재단 제공

남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미술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마련했다.

전남 출신 또는 전남 활동 경력을 가진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블루아트페어는 10만~50만원대 중저가 가격대로 관람객들에게 컬러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마켓형 아트페어 행사로 총 83점의 출품작 중 37점이 1449만원에 판매됐다.

전남도립국악단이 선보이는 '명인명창과 함께하는 오마주 시제'는 관람객 500여명이 기악산조 합주, 남도민요, 호남우도농악 등 전통예술의 깊은 울림과 감동을 함께했다.

이외에도 청년기획자 지원사업, 마한문화전시존, 사가지프로젝트 등 특화사업

홍보존이 펼쳐졌고 전남 예술인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예술인 디너페스티벌 '함께 동행'을 개최, 전남예술인 108명이 참여해 연대를 강화했다.

또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한 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청소년들에게 문학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기 위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기념 시적 산문쓰기 백전'을 개최했다.

김은영 전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지역 예술을 선보이고 창작 유통 시스템을 마련해 예술인들이 경제적 성취감을 도모하는 동시에 도민에게는 문화향유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이다"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박찬 기자

국립광주과학관, '2024 전남과학대학교 산학EXPO'

25~26일 과학관 일대에서 열려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 25일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전남도, 곡성군, 국립광주과학관의 후원으로 '2024 전남과학대학교 산학EXPO'를 국립광주과학관 야외 일대에서 개최했다.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운영된 '2024 전남과학대학교 산학EXPO'는 '함께 미래로 WE RUNNING'이라는 슬

로건으로 지역사회, 산업체, 대학이 함께 하는 산학협력 성과를 공유·전시했다. 25일 개막식은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6일에는 랜덤플레이 댄스와 도전골든벨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정구 국립광주과학관 관장은 "이번 산학EXPO 개최를 통해 전 연령층이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과학관 역할을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찬 기자